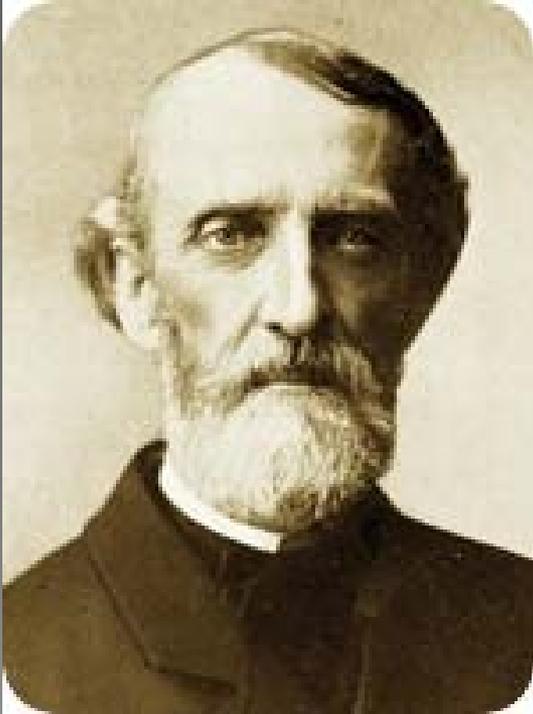


Brethren에 대한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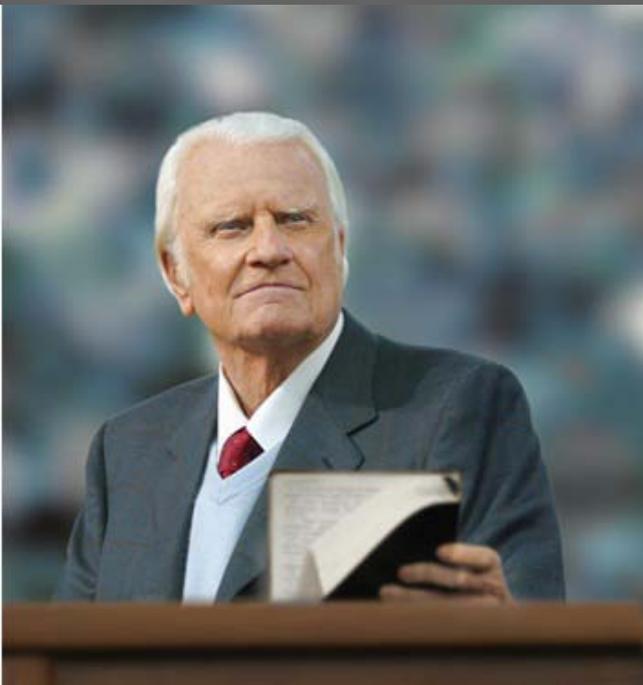
아더 피어선(1837-1911), 조지 물러 전기 작가

- (다비, 조지 물러, 채프만을 가리켜)
- “우리 시대에 거인들이 살았다.”



빌리 그레이엄,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 “진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언제나 플리머스 형제교회 소들의 우유를 얻어 마셨다.”
- (빌리 그레이엄 자서전)



David. M. 판톤 (1870-1955)

- “형제 운동의 영향력은 종교 개혁보다 훨씬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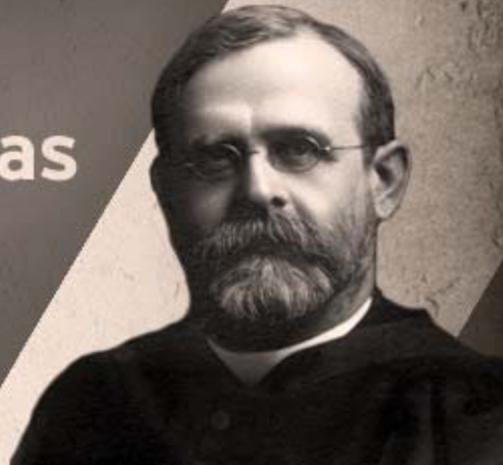
* 종교개혁은 끊임없이 개혁해야 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낳았지만, 형제교회 운동은 개혁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교회로의 회복운동이었다.



그리피스 토마스(W. H. Griffith
Thomas),
옥스퍼드 교수, 달라스 신학대학원
공동 창설자

“형제들이야말로 교회 역사상 하나님의 자
녀 중에서 진리를 가장 바르게 해석한 사람
들이었다.”

W. H. Griffith Thomas
Heritage Of Grace



마크 프리스, "What I have Found"의 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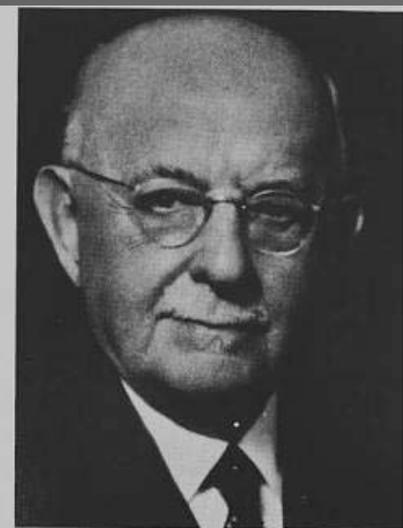
- ◎ “1800년대 초, 성령님은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심으로써 주님의 이름으로만 모이는 형제들과 같은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시작은 비록 소수의 작은 무리로 경멸을 받으며 시작했지만, 형제교회는 복음주의 기독교계에 잊혀질 수 없는 족적을 남겼습니다.

- 오늘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히 회자되는 주제들, 즉 그리스도의 신속한 재림이라는 복된 소망, 율법과 은혜 사이의 명백한 구분,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교회의 독특한 지위, 이스라엘의 미래 축복, 등과 같은 진리들은 J.N. 다비, 윌리엄 켈리, F.W. 그랜트, H.A. 아이언사이드, C.H. 매킨토시, 사우엘 리도우트, W.E. 바인 등과 같은 브레드린 저자들과 성경 교사들에 의해서 그 시대에 상당히 모호하게 회자되고 있던 진리들을 회복시킨 공헌에 힘입고 있다.

- 이러한 경건하고 은사 있는 사람들이 수년 동안 복음주의 기독교계에 미친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 나는 이 형제들을 높이려는 뜻이 아니라, 이들을 무슨 극단적인 종파 또는 심지어 이단으로 취급하려는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반대로 형제교회는 지난 2세기 동안 성경을 믿는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 육체의 부활과 문자적인 재림, 오직 믿음을 통한 구원, 성경의 축자 영감 등 신앙의 근본적인 교리들을 수호하는 일을 해왔다."

A.C. 개벨레인, "Fundamentals(근본주의)"의 편집자

- “나는 J.N. 다비, 윌리엄 켈리, C. H. 매킨토시, F. W. 그랜트, J.G. 벨렛 등 형제들의 글 속에서, 내 영혼이 필요로 하는 영적 양식을 섭취했다. 나는 이 형제들의 건전하고 신령한 가르침을 통해서 볼 때, 이들이야말로 사도들 다음 가는 영적 거장들이라고 생각한다.”



워치만 니, 중국의 위대한 성경 교사

- “나는 수입의 1/3은 개인적 필요에, 1/3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에, 나머지 1/3은 형제들의 책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
- * 다비를 가리켜 “이 시대 최고의 선견자”라고 추앙했다.
- * 워치만 니는 형제들의 글을 통해서 신앙을 형성하고 중국에서 작은 무리 운동을 일으켰지만, 성경을 영해하고 신비주의에 빠졌다.

나폴레옹 노엘, "형제교회 역사"의 저자

- “지난 세기 가장 위대한 근본주의 지도자들은 다비와 형제들의 가르침과 사역에 큰 빛을 지고 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

J.A. von 포섹



“그대가 다비란 사람과 잠시라도 함께 하게 된다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고 또한 위대한 사람이란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찰스 스펀전, 영국 침례교 목사

- “윌리엄 켈리는 우주를 위해 태어났다. 그의 생각은 우주만큼 크다.”



에드윈 크로스

- “켈리의 책은 모든 곳으로 갔다. 북미 지역 전체와 심지어는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에도 갔다. 모든 대륙에서 그의 책을 필요로 했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및 신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했다. 영어로 된 최상의 책들을 읽고 싶어 하는 일본 국민들이 켈리의 책들을 주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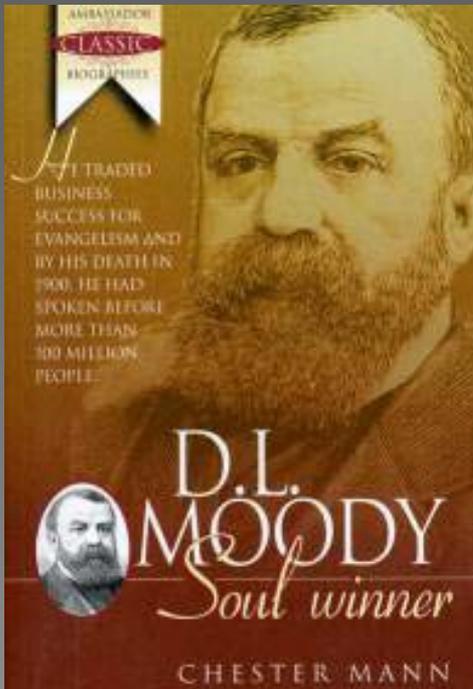
C.I. 스코필드, 스코필드 관주 성경 의 편집자

- ◎ “매킨토시의 저서는 나에게 성경의 예언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D.L. 무디, 100만명에게 복음을 전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 “전 세계의 책이 다 타버릴지라도 나에게 한 권의 성경과 매킨토시의 모세 오경 주해만 있으면 충분하다.”



D.L. 무디, 100만명에게 복음을 전한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 “나는 C.H. 매킨토시의 저서들에 큰 빛을 지고 있다. 그의 저서들은 나에게 성경 진리를 열어주었으며, 그의 저서를 읽는 시간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내가 가진 모든 책의 장서를 잃어버린 다해도, 결코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매킨토시의 저서들이다. 성경과 그의 책들만 있으면 충분하다. 그의 저서들은 내게 성경을 이해하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어 주었다.”

- “매킨토시의 책은 나의 영적인 삶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 “매킨토시는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다.”
- “내가 설교 중 찰스 스탠리의 므비보셋 이야기를 인용했을 때, 회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다.”
- * 무디가 1867년 영국으로 오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할 수 있는 한 플리머스 브레드린에서 성경, 특히 성경의 예언을 배우기 위한 것이었다. 무디는 미국에서 전천년주의를 최초로 받아들인 유명한 전도자였다.

- “헨리 무어하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말해준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주셨다. 자신의 독생자, 하나 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다. 이것이야말로 이러한 사랑을 입은 사람은 결코 멸망할 수 없는 이유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은 시작이고 끝이다. 우리에게 다른 것이 필요치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사무엘 리도우트(1855-1930)

- “매킨토시의 모세오경 강해는 모든 성경학도들의 장서에 꼭 있어야 할 책이다. 그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전체 성경을 열어주는 열쇠 역할을 해왔다. 사랑하는 저자, 매킨토시는 경건하면서도 진리를 표현하는데 탁월한 은사를 가진 유능한 사람이었다. 영어권 세계에서 그보다 더 아름답고도 강력하게 영어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해리 아이언사이드(1876-1951) 구세군, 형제교회, 무디기념교회

-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알든 모르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이 ‘형제들(brethren)’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다.”
- “다비의 성경주석 시리즈는 모든 성경학도가 평생에 곁에 두고 연구할 불후의 명작이다.”



- ◎ “성경강해에 대해서 말하자면, 나는 조금도 주저 없이 다른 누구 보다 소위 플리머스 형제교회의 5명의 저자들에게 큰 빛을 쬐었다고 말하고 싶다. 매킨토시의 모세오경 강해와 함께 매킨토시 선집(Miscellaneous Writings)은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내가 젊은 설교자였을 때, 나의 믿음을 위한 굳건한 토대를 놓고 또 성경 진리를 바르게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찾고 있었을 때, 매킨토시의 두 가지 책은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주었다.”

유진 슬러 잉글리쉬, 아이언사이드 전기 작가

- “그리스도의 교회는 형제교회에 큰 빛을 지고 있다. 형제교회 초기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 J.G. 벨렛, J.N. 다비, 윌리엄 켈리, C.H. 매킨토시 등은 참으로 헌신되고 은사를 받은 종들이었고, 변할 수 없는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새로운 방식으로 여는데 성령님께 쓰임 받은 도구였다. 이들의 설교와 문서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머리되심, 그리스도 몸의 하나됨,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 그리고 임박한 주의 재림과 같이 중요한 진리들이 교회에 되돌려졌다.”

워렌 위어스비, 미국 침례교 목사

- “내가 매킨토시에게서 받은 신령한 복과 교훈의 부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다.”



결론

- 무엇 때문에 이러한 초교파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이 형제들을 이토록 칭송하고, 깊은 존경을 표한 것일까? 과연 천당가는 티켓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복음, 죄사함과 거듭남에만 머무는 복음이 형제교회의 영적 유산이었을까? 현재 한국 모임은 형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과 교회 진리를 어느 정도나 깨닫고 이해하고 있을까?

- ◎ 제2의 종교개혁으로 인정받은 형제교회의 운동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그들의 교리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앞으로 한국 모임이 걸어가야 할 길이다. 그들은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방향성을 알려주는 신적인 한줄기 빛이다.